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
전 6시 정각에 공개됩니다.

1:6 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고, 나는 확신합니다.

지난 주 (9/6/26)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685.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2026년 9월 13일 (673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은숙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갈라디아서 6:11-18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예수 +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9/20/26	9/27/26
윤한진	유영환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1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그러므로

부르심은 모든 믿는 자들을 생명으로 부르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부르며 자유주의 신앙은 “자유의지와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오늘날 절대 다수의 교회가 알게 모르게 자유의지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하는 것을 본다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것은 개신교의 전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집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일반적이고 특수적이며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내적 부르심은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믿어지는 특별한, 특수적인, 선택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총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주제로 이해합니다.

즉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의미하며, 그가 이루실 은혜의 모든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개혁신앙을 가진 자들이요 그 신앙이 바로 성경적인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이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다는 고백이고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반하는 선택일 수 없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계획과 의지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열매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육체의 열매밖에는 맺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 보십시오. 내 안에 육체의 열매밖에는 맺힌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실 것입니다. 이런 나를 왜 하나님이 붙드시는지, 왜 나를 부르시는 지 왜 나를 이끌고 가시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바로 은혜의 접속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에 도달하면 결국은 기회가 주어진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외칠 수 밖에 없으며, 믿음의 식구들을 소중히 여길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